

일본인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정대균 지음 | 이경덕 옮김

일본인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펴낸날 1999년 10월 11일

지은이 정대균

옮긴이 이경덕

펴낸이 한승오

펴낸곳 도서출판 강

출판등록 1995년 8월 24일(제10-1196호)

주소 (121-240)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56-6번지 2층

전화 3141-0195(연접) 3141-8041(영접)

팩시밀리 3141-0196

값 10,000원

『韓國のイメーヅ』

Copyright © 1995 by Chung Daekyun

Originally published in Japan in 1995 by Chuokoron-sha, Inc. Tokyo.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1999 by Kang Publishing Co.

Korean translation rights arranged through Imprimis Korea Agency, Seoul.

Translation Copyright © 1999 by Kang Publishing Co.

*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Imprimis Korea Agency를 통한 Chuokoron-sha, Inc.와의
독점 계약으로 도서출판 강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ISBN 89-8218-046-X 03900

강
이



차례

머리말 · 7

제1장 변화하는 이미지 · 15

여론 조사의 결과 · 17

시기 구분 · 27

화제가 된 책의 변천 과정 · 36

제2장 관심 형태 · 47

식민지 체험형 · 49

속죄형 · 57

이데올로기형 · 62

고대사형 · 66

이문화형 · 69

제3장 전후 이미지의 원형 · 73

이웃나라라는 존재 · 75

‘약당’의 이미지 · 77

‘이승만 라인’에 대한 시각 · 85

또 하나의 시각 · 95

제4장 독재 국가의 행방 · 111

‘독재 국가’ 113

‘원리미의 나라’ · 121
환상에서 환멸로 · 136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 · 150

제5장 덮였지만 덮지 않는 나라 · 159

이질성의 발견 · 161

문화적 한국론의 문제 · 166

유사성의 논의 · 177

제6장 공존하는 이미지 · 189

호감 · 191

혐오 · 204

양면성의 예 · 218

진보파와 정치적 규범 · 223

선인과 악당의 이미지 · 231

저자 후기 · 235

역자 후기 · 239

저자 주 · 243

시행 색인 · 253

인명 색인 · 256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중앙서 101 1161775

관심 형태란 “한 개인의 내면에 단독으로 존재하거나, 병존하여 서로 보강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주관적인 가치 형태” 또는 “개인 생활에서 얻게 되는 ‘체험’과 ‘행동 근거(theme)’가 대상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양식mode”으로 정의된다.¹⁾ 이 장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화제가 된 책의 저자들 가운데 일부도 포함시켜서,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물들의 이웃나라에 대한 주요한 관심 형태들을 묘사해보고자 한다. 관심 형태는 ‘식민지 체험형’ ‘속회형’ ‘이데올로기형’ ‘고대사형’ ‘이문화형’ 등 모두 다섯 가지다. 당연한 말이지만 각각의 유형을 특징짓는 행동 근거나 동기, 체험은 종종 다른 유형과 겹친다.

식민지 체험형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식민지 시대에 거주하며 생활했거나 유년기를 조선에서 보냈거나 또는 여행자로써 식민지 시대의 조건을 방만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관심 형태에 공통되는 것은 과거의 조건에 대한 향수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이런 종류의 향수로써 자주 언급되는 것은 넓은 강을 따라 녀석한 물이 천천히 흘러가는 낙동강 풍경, 겨울의 얼어붙은 한강 풍경, 줄지어 서 있는 미루나무, 천천히 거리를 달리는 우마차, 미나리와 야채를 팔러 다니는 담자들, 군밤을 파는 소년들이 외치는 목소리, 연달리거나 말타기, 여성의 아름다운 치마저고리, 긴 담뱃대를 들고 있는 양반풍의 노인, 온돌의 따뜻함 등이다. 이런 종류의 향수를 기록한 작품에는 가토加藤松林인의 『한국의 아름다움韓國の美しさ』(1973년), 미야자키 세이타로宮崎清太郎의 『잘 있거라 조선이여さよなら朝鮮』

(1975년)와 『원숭이와 개의 싸움(猿猴合戰)』(1982년), 요네쿠라 가쓰노 리미(倉勝則)가 편집한 『현해탄 저 너머(玄海灘のかなたに)』(1993년) 등이 있다.

그러나 전후 일본에는 식민지 체험을 향수로 추억하는 것을 금기 시히는 풍조가 있었고, 담론의 세계에 등장하는 식민지 체험자의 대부분은 스스로 향수에 빠지는 일을 금하는 태도를 취했다. 예를 들면 이런 태도는 문학가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조선에서의 생활 체험을 지닌 작가로는 나카지마 이쓰시(中島敦, 이쓰키 히로유키(五木寛之, 가지이마 도시유키(梶山季之, 오야부 하루히코(大藪春彦,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 모리시키 가즈에(森崎和江, 무라카미 겐조(村上元三, 모리 이쓰시(森敦, 사키 류조(佐木隆三, 후루이마 고마오(高木高麗雄, 고토 메이세이(後藤明生, 히노 게이조(野嵜三 등이 있지만 고바야시 마사루, 모리시키 가즈에를 빼고는 식민지 체험을 모티프로 한 작품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고 책이 화제가 된 예도 드물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식민지 체험을 모티프로 한 작품이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개인화되고 미화된 과거를 단순히 추억하는 선에서 그쳐서도 안되고 동시에 금욕적인 윤리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는데, 비록 소수이지만 그런 예가 있다. 히노 게이조(野嵜三(1929년생)는 지전적 소설인 『태풍의 눈(颯風の眼)』에서 어린 시절 경성(京城)에서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썼다.

어느 날 저녁 사택 위에 있는 언덕에 처음으로 올라갔다. 어떤 특별한 일이나 목적도 없었다.

구시가지의 에워싸고 있는 양쪽의 바위산이 한강변까지 이어져 있었다. 언덕 동쪽에는 경성역과 철도 공장, 병영, 내가 다니는 중학교가 있는 신축 지역이 있었고 반대쪽인 서쪽에는 주로 조선인이 사는

주택지가 있었다. 동쪽에는 조선인도 살았지만 서쪽에는 일본인이 거의 살지 않았다. (중략)

처음으로 그 언덕의 정상에 올라서서 서쪽을 건너다보았을 때 생각지도 않게 확 트인 시야에 들어온 대단한 풍경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비탈길의 바로 앞에는 넓고 초라한 집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네 귀퉁이가 휘어져 올라간 조선식의 검은 기와집이 많았고 주택지는 한강 유역의 평야로 그대로 이어졌다.

저녁 해가 한강 하류의 평야 끝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지랑이와 연기가 얽게 떠돌고 있었는데, 연기는 비탈진 곳에 있는 집들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내는 것이고 이지랑이는 한강의 물이 미지근해지면서 내뿜는 수증기로, 이 사이로 저녁 해의 역광이 저쪽에서부터 비쳐들었다.

구시가지의 중심부에는 흙담을 두른 멋진 저택이 많았지만 교외에 속하는 이곳에는 지극히 평범한 집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인지 저녁의 밝기는 연기는 생활의 분위기를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빈곤한 조선인들의 생활은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결코 즐거울 리 없었지만, 자기들의 땅에서 옛부터 간직해온 뭔가 진짜의 분위기가 풍겨왔고 언덕 반대쪽의 일본인 마을에는 없는 차별함이 있었다. 어슴푸레한 연기는 콧뎀이 아니라 지면에서 솟아나 느릿느릿 들녘으로 퍼가는 듯이 보였다. (중략)

경성은 한반도의 중앙부에 있는데, 한반도는 만주로 이어지며 오르도스(Ordos(대몽골의 오이스지역 : 울진))의 광야, 몽골의 고원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부로, 게다가 페르시아와 유럽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자 눈을 뜨고도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무엇인가가 넓게 열리는 매우 이상한 느낌

이었다. 나는 그 느낌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 후로는 뒷동산에 오르지 않았다. (중략)

그러나 훗날 신문사의 편집위원이 되어 비교적 자유롭게 외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내가 방문한 곳이 중국을 비롯해 내몽, 이란, 터키, 소련, 그밖에 유라시아 대륙의 나라들이었던 것은 아마도 어릴 때 언덕 위에서 내 마음을 빼앗았던 환각적인 풍경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²

히노 게이조가 겪은 조선 체험은 항수를 불러일으키는 매캐라기보다 오늘날의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매캐가 되며, 항수는 이국 정서와 하나가 된다고 보다는 통상의 이국 정서를 반전시킨 것이다. 열여섯 살 때 일본으로 돌아온 히노 게이조는 후쿠야마福山市에서 전차를 타고 아버지의 고향 마을로 돌아갈 때의 정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강변에는 마른 갈대가 무성하고, 냇물이 뒤얽혀 있는 작은 산이 보이고, 추수가 끝난 뒤에 남은 벼의 그루터기가 늘어서 있는 갈색 논이 펼쳐져 있고, 조선의 농가에 비해 높고 모단 농가와 강 양쪽에 완만하게 이어진 낮은 산줄기가 확실히 보였지만, 그런 사물들이 뚜렷한 윤곽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 갈색으로 뒤덮인 색채가 거의 공중에 떠 있는 듯 희미하게 흘러갈 뿐이었다.

집에서 멀 게서가 아니라 처음 본 일본의 농촌 풍경에 내 의식이 초점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선천적으로 장년으로 태어난 아이가 수월에 성공해서 사물을 처음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세상이 이와 비슷한 풍경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형태와 깊이를 결정할 수 없는 색채가 넓게 퍼져 번져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전차로 30분 정도 걸려 역무원이 두세 사람밖에 없는 작은

역에 내려 역무원이 알려준 작은 길을 따라 마을을 향해 막 건기 시작했을 때, 길옆에 있는 농가의 뜰에 한 그루 커다란 감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잎은 말라 떨어지고 잘 익은 감 두 개만 가지에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막 떠오르기 시작한 아침 햇살이 아침녘 옅은 어지럼이가 되어오르는 마을의 잘 익은 감을 선연한 붉은 색으로 비추고 있었다.

이때 내 의식 속에 겨울이 가까워진 일본의 농촌 풍경이 명료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이미지라기보다 문장이었다. 먼 조선의 시골 소학교에서 배운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던 문장이었다.

감나무에 빨간 감이 하나 남아 있고 나는 시박시박 새로 절인 배추를 씹는다는 뜻의 문장이었다. 그것을 읽으면서 일본의 시골 풍경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또렷이 의식하고 있었는데 그 간결하고 명쾌한 문장과 이미지가 놀랄 만큼 선명하게 떠올랐던 것이다.³

물론 식민지 체험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1908년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난 조선사 학자인 하타다 다카시(樺田 纒(1908년생, 사망)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다음과 같이 썼다.

어릴 때를 생각하면 아름다운 산하와 함께 부모님과 친구들이 생각난다. 당시의 친구들 가운데 지금껏 연락이 되는 사람은 극소수로 대부분은 죽거나 행방이 불분명한데 그래도 몇 명의 얼굴은 기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일본 아이들로 조선 아이들의 얼굴은 아니다. 나는 조선에서 자랐지만 조선인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우연히 연달리거나 해수욕을 함께 하면서 눈 적은 있지만 친하게 사귀지는 않았다. 우리 일본 아이들과 조선 아이들은 서로 떨어져서 자랐다./그것은 마산이라는 도시의 구조와 큰 관계가 있다. 마산은 신

미산과 구마산으로 나뉘어 신마산의 중심부는 일본인 거리, 구마산은 주로 조선인 거리였다. /나는 신마산의 일본인 거리에서 지냈다. 따라서 근처에는 일본인 집들밖에 없었다. 소학교에도 일본 아이들만 있었다. 소학교는 신마산의 일본인 거리에 있었고 구마산에 사는 일본인 아이들도 그곳으로 다녔다. 조선 아이들의 학교는 보통학교라고 불렀는데 구마산에 있었다. 운동회나 학예회를 열어도 초대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우리의 일상 생활도 일본에서와 다를 것이 없어서 조선의 생활 방식과 전혀 달랐다. 우리는 일본식 목조 가옥에서 살았고 기모노를 입고 일본식의 식사를 했다. 집 일부에 온돌을 만들거나 김치를 담그는 등 조선식 생활 양식의 일부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거의 완벽하게 일본의 생활 양식을 고수했다.⁴

체험은 모두 달랐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에 아이치縣知현에서 경성으로 옮겨와 살았던 다니카 이키라는 어린 시절의 회상을 이렇게 썼다.

내가 당시 살고 있던 곳은 지금도 있지만 청경원이라는 넓은 공원 근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서양식 공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작은 언덕이 있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작은 길을 낸 정도였지요..... 그 너머는 매우 불편한 지역, 그러니까 시가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언덕 위에 있었는데 그 아래로 조선인 거주 지역이 있고 큰길을 건너면 일본인과 조선인의 집이 나란히 있었지요. 즉 조선인과 일본인이 뒤섞여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근처의 조선 아이들과 늘 함께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도 점점 일본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바뀌어갔고 조

신인은 생활 기반을 상실했습니다. 아니 빼앗겼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얼마간의 돈을 받고 일본인에게 토지와 집을 팔아 넘겼어요. 거기에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깃들여 있었을 터인데 아이였던 나는 그런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자 우리 집 근처에서 조선인이 사라지고 함께 놀던 조선 아이들의 모습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지요.⁵

역시 직면지 체험자인 작가 혼다 아스하루本田晴穂(1933년생)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내가 경성에 있었을 때는 앞에서 말한 대로 중학교 1학년 여름까지였기 때문에 행동 범위는 자연스럽게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역 속의 '경성 진도進圖'는 공백투성이로 그 면적도 넓지 않다.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몇 개의 점과 점을 연결한 몇 개의 선이다. 원래 대부분의 일본인은 점에 의지해서 생활했다. 그것이 일본인 거리다. /내가 살고 있었던 곳은 나시온켄區榑정이라 불렀는데 천차 길을 경계로 히기시區榑榑榑정과 마주보고 있었다. (중략) /그 좁은 구역에서 한 걸음 벗어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움츠러들었다. 조선 아이들과 싸움이 벌어질까 두려워 항상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민지 지배는 국가 차원의 일로 아이들의 세계는 조선인의 천하였다. 우리는 늘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 (중략) /일본인 거리를 제외하면 지역을 가령 '면面'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중략) /'면'에 들어가면 그곳 아이들이 육지거리를 하거나 돌맹이를 던지거나 침을 뱉기도 했다. 싸움을 거는 것이다. 상대를 알잡아보고 맞장대를 하면 그늘에 숨어 있던 그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뛰어나와 너 왜 작은 아이를 때리는 거야' 하며 가슴을 밀치며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도망치면 멀리

쫓아오지는 않지만 대꾸라도 하면 싸움을 피하지 못한다. /저학년 때 이런 경우에 달려들어 두세 번 치고 받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싸움에 이겼다고 해도 저쪽이 ‘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파에 속해 있는 우리는 언젠가 당할 수밖에 없었다. 우회로로 가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겠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먼’을 피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도월에 대비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몸의 안전을 위해 조선 아이들과 싸움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통학로라는 ‘선線’을 다른 사람이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물론 식민지 체험형의 조선 체험은 이보다 다양하며, 과거의 조선을 돌이켜보며 오늘날의 이웃나라를 바라보는 그들의 방법에도 다양한 개인차가 있다. 식민지 체험은 어떤 사람에게는 항수라는 감정으로 살아남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회한이라는 감정으로 살아 있다. 또한 스스로 항수에 짓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태도는 공통적이라도, 항수와의 갈등 양식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전후 반체제가 흐르면서 식민지 체험자 대부분은 고인이 되었는데,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새로운 상호 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예전의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진행되었던 상호 작용의 당시적인 식민지 체험자의 체험을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 도식화된 식민지사 이외의 역사를 나무나도 모른다. 호세(高坂)대 교수이자 문예평론가인 기와무라 미나토(村瀬(1951년생))가 지적한 대로 일본의 식민지 체험자의 침묵과 대응되는 것은 이웃나라의 ‘식민지 세대’나 ‘황국 신민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침묵이다. 일본의 식민지 체험자가 “버드나무의 푸르름이나 카나리아의 빛깔 같은 개나리 색으로 채색된 아름다운 ‘고향’을 잃은” 것처럼 한국의 ‘식

민지 세대’도 “그 ‘무구하고 귀중한’ 과거를 상실한’ 것이며, 이들 모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말하려 하지 않는 태도이다.’ 이것은 우리가 식민지 시대의 좀더 다면적인 성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속죄형

이 유형은 식민지 통치에 대한 속죄 의식을 계기로 일본인의 민족적 책임을 묻는 도덕적 관심 형태다. 속죄형은 다음에 볼 이데올로기형과 종종 연대해서 진보파를 형성하는데, 이데올로기형과 다른 점은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단지 정치 지도자나 국가의 죄로 환원하지 않고, 일본인이 집단으로 이웃나라에 대해 저지른 죄를 스스로 확인하고 집단 자체의 인간과 사회 변혁을 통해 이웃나라와의 연대를 확인하려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에는 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다마키 모토이(玉城素(1926년생))는 1960년대에 낸 『민족적 책임의 사상民族的責任の思想』이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이라는 존재는 일본 민족에게 ‘원죄’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먼저 신공황후(神功皇后) 이후 역사적으로 침략의 대상이라는 이미지로 묘사되어온 점(도요토미 히메요시의 임진왜란, 정란론, 강화도 사건 등) 때문이다. 두번째는 메이지 유신 이후 두 번에 걸쳐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고(정일 전쟁, 러일 전쟁), 거기에 1910년 이후 35년 동안 식민지로 지배한 것 때문이다. 세번째는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을 정점으로 한 수많은 학살(의병 토벌, 3·1 만세 운동 진압, 간도 빨치산 토벌, 강제 연행한 노동자 학살 등) 때

문이다. 내번제는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을 전쟁으로 끌어들인 것(만주사변 때의 조선 이민, 태평양 전쟁 때의 징병과 일본의 강제 연행) 때문이다. 다섯번째는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의 결과 1945년 이후 한반도가 분단되는 비참한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 때문이다. 여섯번째는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에게 기지와 군수 물자를 제공하는 대신 자국의 경제 부흥과 번영을 도모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일곱번째는 전후에도 일관되게 재일조선인에게 부당한 차별을 계속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여덟번째는 1965년 이후 분단된 조선의 한쪽 정권과 국교를 맺어 민족 분단 사태에 정치적으로 개입한 일 때문이다./이런 일련의 역사적 사실들은 결코 하나하나 따로 떨어진 것들이 아니다. 일본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연속적으로 가해 체험을 거듭한 것이며, 조선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연속적으로 피해 체험이 거듭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두 민족 사이에는 군사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 관계의 대립이 존재했던 선례가 없으며, 문화적으로는 서로 모종했다기보다 오히려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일본 민족이 조선 민족에게서 훨씬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 민족의 역사적 가해 행위는 모두 '이유 없는 범죄'였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범죄는 현실적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조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원조, 정치적인 공동 보조, 정치적인 해방, 정치적인 혁명 등이 아니다. 우리의 사상적 변혁을 바탕으로 인간 관계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 생활 원리와 구조의 근본적인 개조를 지향하는 사상·사회·문화·경제·정치 모두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다. 우리 속에 내재하는 모든 지배와 차별을 파괴하고 근절하는 것, 모든 기면과

위선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사상적 연대의 장을 만드는 것, 국가의 인위적 경계를 뛰어넘는 공동의 창조를 경영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것, 우리가 그 거대한 목표의 무게를 알아차릴 때 우리의 '이유 없는 범죄'에 대한 그들의 '이름다운 복수'가 성취되는 것이다.°

전후 일본에는 아시아에 대한 두 가지 책임론이 있었다. 하나는 중국에 대한 전쟁 책임론으로 전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오키마 노부유키(大熊信行)와 이타미 만사쿠(伊丹萬作)에 의해 시작되어 1950년대 후반에는 쓰루미 슌스케(鶴見徳輔), 요시모토 다카이키(吉本隆明), 이어나가 시부로(家永三郎) 등에게 계승되었다. 다른 하나는 민족 책임론으로 주로 중국에 대한 침략 책임을 묻는 다케우치 요시미치(竹内好), 다케우치 미노루(木内實), 조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다마키 모토이, 스즈키 미치히코(鈴木道彦) 등의 두 갈래가 있었는데, 조선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으로 중국에 대한 책임론에 비해 늦었다. 왜 조선에 대한 민족 책임론이 늦었는가는 흥미로운 문제인데,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중일 전쟁이나 남경 대학살 등과 같은 명쾌한 침략 이미지가 형성되기 어려웠다는 점이나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의와 조선에 대한 멸시라는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앞의 인물이 처음 세상에 나온 것은 1964년, 그러니까 한일회담 반대 투쟁의 목소리가 높았던 때의 일이다.

원래 조선에 대한 민족적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사회 참여 발언의 예로는 이보다 빠른 고마쓰가와 사건이 있다. 1958년 8월 21일, 4일 전부터 행방불명되었던 도쿄 에도가와구 고마쓰가와 고등학교의 학생 오다 요시에(太田芳江)의 부패된 시체가 같은 학교 옥상에 있는 증기 배수로 속에서 발견되었다. 채포된 것은 같은 고등학교 1학년인 이진우(사건 당시 18세)였다. 이진우는 신문사에 전화를 걸고 장태

를 준비하고 있는 오다의 집에 피해자의 빚을 우선하는 등의 도발적인 태도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살인 동기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진우는 구빈 가정에서 자라 중학교 졸업 후 히타치日立와 세이코사精工舎에 취직하려고 했지만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동네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며 막 아간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때였다. 이진우에게는 같은 해 4월에 일어난 식모 살인의 여죄가 있어, 같은 해 10월 두 건의 강간치사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최고재판소에서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았고 1962년 11월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사이 1960년 8월에 히타다 다카시와 소설가 오오카 쇼헤이大岡秀平(1909~1988년)를 중심으로 한 '이진우 소년을 돕는 모임'이 생겨났고 이들을 중심으로 감형 운동이 전개되었다. 속죄형은 이후에도 김희로金禧老 사건(김희로는 1968년 시즈오카縣岡元 시미즈류次사에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폭력 조직 건부 등 2명을 사살한 뒤 여관에서 투숙객을 인질삼아 경찰과 대치하다 4일 만에 검거되었다. 당시 인질극은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생생하게 중계되었으며 김희로는 "경찰관의 한국인 차별을 고발하기 위해 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해 당시 일본 사회의 한국인 차별 문제를 크게 부각시켰다: 옮긴이), 히타치 제작소 재판 투쟁(1970~1974년), 출입국 관리 반대 투쟁(1971~1973년), 지문 달인 반대 운동(1980년대)과 재일한국인·조선인의 인권 운동과 깊은 연관을 맺었는데 고미쓰기와 사건은 그 효시였다.

속죄 의식을 매개로 한 이웃나라와 재일한국인·조선인에 대한 관심은 주로 문학이나 연구자의 공감을 이끌어냈는데, 그런 사고가 창작 세계에 투영되어 성공한 예는 영화감독 오시마 나기사大島渚(1932년)의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잊혀진 황군들忘れられた皇軍」(NTV, 1963년)이 있다. 이 작품은 예전에 일본 제국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한국인 상이 군인의 마음의 상처를 묘사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인 상이 군인에게는 연금을 지불했지만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인 상이 군인은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오시마 나기사와 그의 스태프는 그들이 일본 정부와 교섭을 하는 것에서부터 촬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 정부의 주일대표부(지금의 주일대사관)에 구원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대답을 할 뿐이었다.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그들은 길거리에서 연설을 시작했지만 길을 가는 일본인들은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았다.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그들은 싸구려 식당의 한구석에서 조출한 술판을 벌인다. 그러나 술에 취한 그들은 동료들끼리 싸움을 시작하고 만다. 모임은 깨지고 아직도 남은 울분은 토로하는 장님인 남자가 분노에 떨며 자신의 검은 안경을 벗는다. 그러자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¹⁰ 오시마의 작품으로는 이 외에도 고미쓰기와 사건(이진우를 모델로 한 영화 「교사형絞死刑」(1968년)과 「청춘의 묘비情春の碑」(1964년), 「저 하늘에도 슬픔이」(1965년) 등 한국을 모델로 한 것들이 있다.

한편 문학 작품으로는 조선인 갱부를 그린 이노우에 미쓰하루井上光晴의 『황구의 크레인인虛構のクレーン』(1960년)과 「장화도長靴鳥」(1953년), 가지이마 도시유키堀山季之의 「죽보族譜」와 「이조선영李朝殘影」(모두 『이조선영』(1978년)에 수록), 이진우를 모델로 한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철규하는 소리叫び聲』(1963년), 김희로 사건을 모델로 한 혼다 이쓰하루의 논픽션 『사적私撰』(1978년) 등이 있으며 최근의 것 가운데 쓰노다 후사코角田房子の 『민비 암살』(1988년)도 속죄 의식을 모티프로 한 작품이다. 그 외에 1967년에 '전쟁 책임 고백'을 발표한 일본 기독교단, 또는 잡지 『조선인朝鮮人』의 발행인이었던 이누마 지로飯沼二郎과 쓰루미 슌스케처럼 속죄 의식을 매개로

해서 ‘한국 문제’와 재일한국인의 인권 운동에 참여한 개인과 집단의 예가 있는데 이들 모두 이데올로기형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1980년대 이후 조선 통치의 역사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은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식민지 통치에 대한 기억이 회미해집에 따라 생겨난 의식(意識) 관심으로 속죄 의식 그 자체는 회박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속죄형의 관심에는 죄를 씻는다는 것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물음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 최근에는 “인으로는 무책임하게 일본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반체제적 입지를 드러내는 그들이, 이런 대외적인 국면에 놓이면 곧바로 일본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떠밀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일본이라는 나라로부터 조금도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¹¹라는 비판도 있다.

이데올로기형

자신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이웃나라에 관여하는, 비교적 널리 알려진 유형이다. 이 관심 형태는 우호·친선의 상대가 북인지 남인지에 따라 진보파와 보수파라는 하위 유형으로 나뉘는데,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담론의 세계를 지배해온 것은 진보파였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서술도 진보파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진보파의 담론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아래는 ‘한국 민주화 지원 긴급 세계대회’(1981년)의 ‘개회 인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대회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 하나는 광주 사건 일 주년을 기해서 한국 민주화를 지원하는 목소리를 전세계에 알려야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내부에서 투쟁하며 민주화 투쟁을 위해 필수적으로 싸

우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이를 통해 신군부 독재 정권을 세워 인권을 탄압하고 미국 정부와 일본의 지원을 바탕으로 왜곡된 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정권을 타도하고, 한국의 새로운 미래, 세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이 회의를 개최합니다. (중략) / 두번째 목적은 현재 전두환 정권의 성격을 밝히고 그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나라들의 지원 실태를 밝히며 이를 통해 전세계에 지원망을 넓히는 일입니다. 세번째 목적은 세계적인 우익화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민중 연대망을 만들어내어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미국, 아랍,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 다양한 곳에서 민주화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우편향 움직임을 저지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¹²

이데올로기형에서 특징적인 것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이데올로기형의 대부분은 한국인과 한국 문화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따라서 의사의 관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정점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들의 관심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널뽀팔이식’ 관심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겐다이코리(現代=) 연구소 소장인 사토 가쓰미(佐藤勝巳(1929년생))는 ‘한일회담 반대 투쟁’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그때까지 나에게 조선은 공화국(북한: 울진)이었으며 운동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 조일(朝日) 우호 운동이었다. 그 이외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단적으로 말해, 미제국주의가 군사력으로 파쇼 정권을 지지하고 남조선 인민을 괴롭히며 또 공화국에 적대하면서 자주적 평화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한국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1960년 4월 19일 한국 민중이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일과 한국 내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 등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남조선 인민과 연대하자’라고 외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반체제 운동이 ‘태모’라는 형태를 띠고 구체화되었을 때 생긴 관심이었다. 그 ‘태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화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굳이 따진다면 한국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개 공화국을 지지하지 않을까 하고 내 희망을 섞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¹³

전후 일본에서 한반도와 관련해 정치적 쟁점이 되었던 항목으로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한일조약의 성립(1965년), 김대중 사건(1973년), ‘광주 사건’(1980년) 등인데, 이테올로기형의 관심과 사회 참여 발언은 이러한 이슈의 흐름과 맞닿아 있고 때로는 ‘문제’를 스스로 만들기도 했다.

두번째로, 진보파는 한일조약을 ‘동북아시아 군사 동맹’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을 독재지와 저항하는 사람의 장구이라는 형태로 구도화하여 한국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동조하는 태도를 취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반독재 운동의 주요 조정자coordinator였던 전 이와나미(渡邊 稔) 소장 아스에 로스케(渡江 良介(1935~1998년))는 『세계어界界』지의 편집장 시절에 김일성 주석과의 회견기를 남겼는데 다음과 같다.

내가 1972년 가을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일곱 시간 정도 김일성 주석과 회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올해(1976년) 3월에 방문했을 때도 네 시간 정도의 회견 기회를 얻었습니다. 회견의 대부분은 통일 문제와 조일 관계로 지난번과 비교해서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 특히 김일성

주석의 두 가지 발언에 매우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그 하나는 주석이 핵무기에 관해 전면적으로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김일성 주석이 핵무장과 핵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되풀이해서 분명히 밝힌 사실이지만, 남조선에 많은 핵탄두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남북한의 긴장 속에서 미국이 현실적으로 핵공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위협이 존재하고 박정권 역시 핵개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새로운 현실 상황에서, 김일성 주석이 ‘우리는 핵무장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만 아니라 핵무기가 전쟁에 대한 억지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내 질문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부정했고 또한 핵우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명확히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은 핵무기의 비침힘을 생생하게 체험한 민족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김주석의 이런 발언에 경의를 품었습니다.”¹⁴

물론 모든 진보파가 아스에처럼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동조자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 중에는 ‘북한=지상 낙원’에 대해 ‘한국=생지옥’이라는 북한의 선전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한국의 독재 정치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도 북한의 진짜 독재 정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유형으로, 대립 관계에 있는 한반도의 한쪽을 지지하면서 다른쪽을 흔들려고 하였다.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런 진보파의 관심과 태도가 대중매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대중매체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고 그 담론은 신중하고 억제된 것이기는 했지만, 한국을 기피하고 정치적으로 암울한 국가로 꾸며내는 데 공헌했다. 1970년대 말 여론 조사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독재적이며 자유가 없다는 식의

이미지는 이러한 진보파의 선전이 만들어낸 소산이었다.

진보파 세력은 오늘날 일본 내에서는 뚜렷이 퇴조했지만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정부와의 우호·친선을 주장하며 한일 관계를 실질적으로 규정해온 것은 보수파 세력이다. 그런데 그것을 ‘국소 정권에 대한 지지’라고 비판했던 이들 진보파 세력은 이웃나라에 대한 일본인의 이미지 형성에는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한일 관계를 규정하는 힘은 없었다. 이런 상황은 상호 교류와 상호 침투의 시대에 들어와 변화한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대중매체와 정부가 일본 비관파 이수로 들고 나온 ‘교과서 문제’ ‘재일한국인·조선인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은 한국인이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보다는 일본 진보파의 담론에 의거해 만들어낸 것이다. 오늘날 한일 관계의 구도는 ‘식민지 지배는 잘못이었다’라는 일본 진보파의 관심과 태도가 한국의 반일주의와 연대하고 있는 형태다.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세력을 상실한 고전적인 좌익 사관이 한일 관계에서 건재한 것은 이런 한일의 새로운 연대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사형

고대사형은 대한민국과 일본 등 근대적인 국가 관도가 성립되기 훨씬 이전의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애호가와 연구자와 작가의 무리로, 그 지면은 넓다. 그 중요한 모임 가운데 하나가 1969년 교토京都市의 재일조선인인 경귀문齋黃文·정소문齋韶文 형제가 발행한 잡지 『일본 속의 조선 문화』다. 작가를 각오하고 시작했다는 이 잡지는 육십여 쪽의 얇은 잡지였는데, 이 잡지에 게재된

대부분의 좌담회, 논문, 수필은 나중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고대사 애호가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했다. 대표적인 것은 지상 좌담회를 단행본으로 만든 『일본의 조선 문화』 『고대 일본과 조선』 『일본의 도래 문화渡來文化』 『조선과 고대 일본 문화』 시리즈로, 최초의 책인 『일본의 조선 문화』(1972년)는 『일본 역사의 조선관』 『일본 민족과 귀화인』 『고대 일본과 조선』 『인쇄 문화의 유래』 『토기·도자기공의 도래』 『신공과 신시에 대해』 『불교 문화의 전래』 『만요슈萬葉集과 고대 가요』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었고, 참가자도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 우에다 마사이치기上田正昭, 김달수金達壽, 무라이 야스히코村井康彦, 이노우에 히데오井上秀雄, 오카베 이쓰코岡部伊都子, 히야시야 다쓰사부로林屋辰三郎, 유카와 히타케湯川秀樹, 우메하라 다케시梅原猛 등 매우 다채롭다.

고대사형이 이제까지 살펴본 범주들과 구별되는 것은 정치적인 색채를 띠지 않았다는 사실로 이들의 이웃나라에 대한 관심은 정치적 선전 행위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미지의 창출이라는 면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눈에 띄지 않지만, 이웃나라에 대한 무관심과 관심 회피가 일반적이던 시대에 친근감 형성에 공헌한 것은 큰소리로 이야기할 비관자들보다 애호가에 속하는 고대사형의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의 담론은 조선인과 일본인과 사이에 원초적으로 존재하는 유연성類縁性을 상기시켜주었다.

나는 십대가 끝날 무렵 언어 학교에 들어가 몽골어와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동시에 배웠다. 능력이 미치지 못해 모두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지만 언어와 민족에 대해 어렵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다. / (중략) 일본에는 한자나 유럽어에서 차용한 단어가 많은데 그것들을 모두 제외하고 고대 아마토大和 단어로 국한시키면 라리루레로カリルレロ

시작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 몽골어도 마찬가지로이며 이러한 언어 생리는 고대 조선어도 마찬가지다. 한국어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일본에서 유행하는 노래와 아주 비슷한 것은 민족성이 닮았기 때문이 아니라 언어 생리가 같은 집단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십대가 끝날 무렵부터 조선과 조선인에게 존경과 친밀감을 느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런 사정 때문이었다. / (중략) 몽골인은 옛날 유라시아 대륙을 달리며 돌아다녔다. 몽골인뿐만 아니라 그들과 비슷한 인종인 터키인도 그랬으며 지금은 티베트에서 사는 타구트인 등도 그랬고 몽골인과 자매 관계인 토착 민족인(통구스족)도 그랬다. 티베트어를 조금 배우면 일본어와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정적으로 말하면 몽골어를 배워가면서 북방아시아의 거친 광야를 달리며 돌아다니던 무리가 나의 먼 친척처럼 느껴졌다. 이런 기분은, 유행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말하자면 나에게서 조선과 조선인이 원점原點과 같은 상태이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즉 문자 이전에 북방아시아를 달리며 돌아다니던 무리를 꿈과 환상 속에서 본 먼 선조라고 한다면—현실적으로 옆에 있는 조선인이 사실은 가까운 친족일지도 모른다는 기분에 찾아드는데, 이 기분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¹⁵

고대사행의 담론이 보편성과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호기심의 소산이었기 때문인데 이런 담론은 1980년대 이전의 일본에서는 매우 드물었다. 고대사행의 관심은 시사적인 요소에 좌우되는 일은 적었지만 1972년 다카마쓰高松 고분(나라齋藤 원 다카나치高市군 이쓰카明日香촌에서 발견된 고분, 석실 내부에 그려진 남녀 인물상의 복장과 여인의 쪽머리, 긴 치마 등이 한국 고대 문화의 일본 유입을 증명해준다: 옮긴이) 벽화의 발견은 고대사 붐과 고고학 붐을 불러일으켰다.

이문화형

단카이] 세대團塊の世代(1948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 옮긴이)에 속하는 세키카와 나쓰오는 1970년대 말 외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30세가 될 때까지 외국에 기본 적이 없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자기 자신의 폐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해외 여행을 체험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다른 나라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은 좋지 못했지만, 같은 세대 가운데 어떤 종류'의 청년들보다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결단은 쉬웠다.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까닭은 얼마간이라도 여행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이며, 한국에서 '놀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처음으로 한국에 간 것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79년 12월로, 서울 거리에서 술에 취한 남자한테서 춤처럼 잊어버릴 수 없는 육설을 들었다. '최악의 기분이었다' '어마 다시는 한국에 갈 일도 없을 것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을 다시 방문하는데 그 동기를 그는 자신이 '인색'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제까지 언어를 배우기 위해 허비한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수업료는 또 어쨌고.'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동안 얻은 지식은 어떻게 하지.' '어쨌든 원고를 써서 투자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아야지.' 『저울 연습 문제』(1984년)는 1980년대 초반 이 년 동안의 경험에서 나온 작업 성과로, 1980년대 한국 붐의 선두 주자가 되었다.¹⁶

한편 저널리스트인 구로다 기쓰히로黒田勝弘(1941년생)가 한국을 처

음 방문한 것은 1977년으로, 한국의 시민 생활을 취재하기 위해 부산의 어느 서민 집에 머물렀다. 이 집에는 부부와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들은 일본어를 전혀 못했다. 구로다 가쓰히로는 이들과 떠들거리는 한국어로 말하면서 한 달 간 숙식을 같이 했다. “이래쪽이 시장인 상가 아파트의 3층집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장에서 샀구척으로 쓰는 생활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나날이었다.”¹⁷ 그 후 구로다는 1978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어 습득을 위해 1년 동안 연세대학교에 유학했고 1980년부터 5년 동안 교도共同통신 특파원으로 한국에 머물렀다.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1983년)는 그 시기에 『조선 연구』에 연재한 글이 훗날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이다. “물론 그 전에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한국·조선에 몰두했고 한국 관련 기사와 에세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계기는 김대중 사건이었습니다. 기자로서 나 스스로도 보도를 하는 와중에 있었지만 사건 이후 홍수처럼 쏟아진 한국에 관한 보도에 끊임없이 위화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 위화감은 정보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한국인 전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초조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웃나라이자 이웃나라 사람이고 역사적으로 우리와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런 의문과 함께 한국과 한국인의 전체 모습을 가능한 한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머리 속에 떠올랐던 생각과 그 생각을 뒷받침할 기실과 시론試論 만들기의 채적을 담은 책임입니다.”¹⁸

한국과 관계를 맺게 된 동기나 경로는 다르지만 두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치적 관심의 시기(두번째 시기 후반)에 시작되었지만 거기에 위화감을 느끼고 결국 정치적 한국론에서 문화적 한국론의 담당자로 변신해서 1980년대의 한국에 대한 이

마지 전환에 기여했다는 사실이다. 1970년대의 이웃나라에 대한 정치적 관심의 고揚은 그것에 대한 동조나 반발과 상관없이 이웃나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이 시기는 이웃나라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정보나 기회가 막 정비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러한 시기에 한국과 관계를 맺었고, 한국이 어떤 나라이며 한국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이전의 한국론자들보다 명쾌한 언어로 표현해냈던 것이다.

이문화형의 관심은 주로 이웃나라의 생활 문화와 대중 문화, 문화와 행동 양식 등에 집중된다. 이문화형의 선구는 도자기 애호가나 한국 기요를 좋아하는 사람 등의 형태로 일찍부터 존재했지만, 여러 매체에서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은 위에서 본 새로운 한국론자들이 등장한 한국 붐 이후의 일이다. 오늘날 이문화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은 그 이후 이 유형에 속하게 된, 전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인데, 이전의 관심형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지만 여성도 적지 않다.

이웃나라라는 존재

해협을 사이에 둔 이웃나라는 일본인에게 몇 가지 의미에서 특별한 존재다.

애초에 일본인과 이웃나라가 친해지게 된 때는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는 오랜 문화 교류의 역사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일본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운데는 해협 너머에서 그 원형과 매개형을 찾을 수 있는 예가 무수히 많다. 문화 교류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인간 교류의 역사 또한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본인 중에는 자신의 먼 조상이 해협을 건너서 왔다거나 일본 문화의 뿌리는 한반도에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이웃나라는 근대 이후 일본이 군사적·정치적 영향력을 가장 왕성하게 발휘한 지역이라는 의미에서도 특별한 존재다. 이웃나라가 일본의 침략주의의 대상이 된 유일한 지역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은 지역이며 또한 그로 인해 축적된 원한이 오늘날에도 강하게 살아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지만, 이웃나라는 일본 문화의 전파력이 가장 강하게 발휘된 지역이라는 의미에서도 특별한 존재다. 그 중요한 계기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이웃나라 사람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본의 언어와 종교, 제도가 밀려들어난 식민지 지배라는 상황이었다. 일본 문화의 수용은 해방 후에도 계속되었고, 근대 이전에 한반도의 문화가 일본열도의 문화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근대 이후에는 일본열도의 문화가 한반도의 문화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일본 문화의 영향은 오늘날 한국 기업의 경영 방식에서부터 회사원이 통근 시간에 구독하는 스포츠 신문의 기사, 스트레스

해소법인 거라오케와 골프, 거기에 텔레비전의 대하 드라마와 퀘즈 프로그램, 어린이들의 상상인 만화 캐릭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특히 도시 중산층의 생활 양식에는 일본 것을 원형으로 하거나 매개로 한 것이 적지 않다.

이웃나라는 외국에 친구나 지인을 가질 기회가 적은 일본인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몇 안되는 외국이라는 의미에서도 특별한 존재다. 전후 한일 관계는 정치적 관계에서는 마찰이 많았지만 개인적인 우정이나 교류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 의식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한 다른 나라 국민들과의 교류보다 더 쉽게 친밀감을 지어낼 수 있는 성향이 있다.

또한 이웃나라는 재일한국인·조선인의 조국이라는 의미에서도 특별한 존재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일본에는 가까운 아시아 국가에서부터 먼 구미 국가까지 새로운 방문자들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문화적·심리적·정치적으로 외국과 연결된 소수 민족이 있었는데, 재일한국인·조선인과 중국인이 그들이었다. 그들의 존재는 일본인에게 이민족과 이문화와 접촉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일본 사회의 동질성과 폐쇄성의 문제를 밝혀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위에서 말한 것은 일본과 이웃나라의 다양한 관계 중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웃나라와의 관계가 다른 어느 나라와의 관계보다 오래되고 가까운 책임을 일본인에게 시사해준다. 또 다른 이웃나라인 중국과의 관계는 한일 관계와 맞먹는 긴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그 상호 작용의 농도는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것보다 비교가 안된다. 한편 전후 미일 관계는 정치적·문화적으로 전후의 한일 관계보다 원활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역사적 관계의 장구함이라는 면에서는 이웃나라와 견주지 못한다.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다양한 유대와 인연과 이력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고, 또 일본인에게는 단편적

이고 모호하기는 해도 한국인에 대한 상당히 다양하고 풍부한 기억과 지식의 편린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인의 대부분은, 유년기에 고향에서 들은 가난한 재일조선인이나 이와 반대로 위세가 당당한 재일조선인에 대한 소문을 기억하고 있으며, 텔레비전이나 신문물 통해 알게 된 한반도의 남북에서 일어난 사건과 일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억이 낳은 다양한 이미지와 감정들이 축적되어 있다. 해협을 사이에 둔 두 나라라는 한국인에게나 일본인에게나 오랫동안 함께 어떤 관계에 속한 사이였던 것이다.

이 장은 한일 관계가 가장 소원했던 첫번째 시기에 이웃나라와 이웃나라 사람들에 대한 일본인의 시각을 검토하는 부분이다. 열핏 부정적인 시각과 무관심만이 행했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 시기도, 실제로는 또 다른 시각과 태도가 미미하기는 하지만 지속되었다는 점이 서술될 것이다.

‘악당’의 이미지

연합군총사령부GHQ의 담당관으로 종전 직후 일본에 거주했고 후에 허버드 대학 교수가 된 에드워드 와그너Edward Wagner(조선사 전공)는 『일본의 조선 소수 민족』(1951년)이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전후 조선인 소수 민족은 일본에서 언제나 자극적인 세력이었다. 조선인은 수적으로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까다롭고 감정적이며 도당적(徒黨的)인 집단이다. 그들은 절대로 전쟁에서 패한 일본인 쪽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승 국민 쪽에 가담하려고 했다. 일반적으로 조선

인은 일본의 법률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 없게 했고, 미국 점령군의 지령에 대해서도 거의 개의치 않았다. 그 때문에 일본 국내에 많은 혼란을 일으켰다. 점령 초기 몇 개월 동안 재일조선인 탄광 노동자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일본의 중요한 산업이던 석탄 산업의 재건은 장에에 부딪혔다. 경제적 영역에서 조선인의 다양한 활동은 일본의 경제 재건 노력을 자주 저해했다. 1948년 고베神戸의 긴급 사태 선언은 일본의 교육 개혁을 조선인이 방해한 결과 취해진 것이었다. 본국으로의 귀환은 점령 당국이 정책을 결정하고 일본 정부가 시행하려고 했지만 조선인은 그것을 방해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과 사건 때문에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전통적인 적대 감정은 한층 깊어졌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전후에도 재일조선인 사회는 일본인에게 불신과 경멸을 받았고, 또한 일본인들의 일반적인 불만감의 배출구가 되었다.”²

조선인의 불법 행위 대부분은 일반적인 범죄 행위가 뜻하는 것이 상의 반항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일본의 보도 기관이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킨 탓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요소는 작은 사건을 야단스러운 소송 사건으로 만드는 조선인의 성격 때문이었다. 조선인 범법자를 체포하려고 할 때 그와 같은 피를 나누었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조선인이 그 현장에 뛰어들어 폭도로 변하는 예가 매우 많았다. 거기에 정치 문제를 놓고 벌이는 조선인들끼리의 투쟁에 뒤따르는 폭력은, 일본인의 눈에 조선인의 무법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비록 이와 같은 사건으로 조선인의 범죄 상황이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범죄 상황이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에 미친 영향은 여전히 컸다. 조선인의 약탈 행위가 대부분 하층민의 일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조선인은 일본에 불법 입국을 시도했

는데 때로는 전염병을 들여온 사실도 있어서 불안을 가중시키는 실질적인 예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인은 ‘악당’이라는 심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본인의 마음에서 멀어져갈 것이라고 믿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³

위에서 말한 대로 ‘무법’과 ‘악당’이라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이미지가 일본인에게 널리 공유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다양한 담론에서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카이세표』지는 전후 10주년 기념으로 1955년 8월호에서 ‘나의 8월 15일’이라는 글을 열 편 실었는데 그 가운데 두 편이 재일조선인에 대해 다룬 것으로 모두 위화감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신속의 지하공장에서 일하던 미야지키 노부코富子(당시 18세)는 짐을 찾기 위해 나고야名古屋에 갔을 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쪽으로 갑자기 달려온 선명한 흰복袴 차림을 한 한때의 조선인이, 꾸민 짐을 들고 송강정에 나란히 서 있던 우리를 밀어붙였다. 축제라도 벌이는 듯한 그들의 복장은 불타서 휘휘벌판이 된 곳을 배경으로 유난히 반짝거리며 빛이 났다. 그들은 조선말로 뭐라고 하며 왁자지껄한 웃음을 터뜨렸는데 분위기로 보아 분명히 우리를 화제로 삼아 조롱하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까닭은 모르지만 전차가 들어오자 그들은 늦게 전차에 올라탄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독립, 만세”라고 일본말로 외쳤으며 다시 크게 웃었다. 독립! 나는 뭔가 직감하면 서 얼골 표정이 굳어졌다.

재일조선인에 대한 반감과 적의는 당시의 신문이나 단행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재일조선인의 강제 송환일 것이다. 종전 이후 불량 조선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온 일본인들에게 이 문제의 철저한 해결이말로 당면한 최우선의 관심사다. 그러나 강제 송환에 대한 일부 재일조선인의 반항 운동도 근래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북한 공산계 분자들은, 한국에 송환되면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거나 투옥, 처형될 뿐이라는 우선선으로 이 운동을 선동하고 있다. (중략) / 그렇지만 우리 나라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런 위압적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선인은 나라 밖으로 내보내고 싶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곤하거나 구호가 필요한 조선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일본에 거주하게 된 유래에 대한 한국측의 주장과 전쟁의 참화로 고민하는 한국 내의 상황을 인정하면서 인도적으로 취급하는 데 우리 나라가 인색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일본의 법 질서에 협력하지 않고 때때로 집단적 반항을 꾀하는 분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강제 송환해야 하며 이 점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⁴

더구나 그들이 벌이는 폭력 사건과 오늘날 우리 나라의 일부 파괴적인 극좌 분자가 취하고 있는 군사 방침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오히려 파괴적인 일본인 공산주의자보다 전술적으로 앞서는 형태로 무장 투쟁 수단에 호소하고 있으며, 실력 행사의 방법도 일찍부터 화염병, 최루탄, 폭약, 고춧가루를 넣어 눈을 못 뜨게 하는 가루, 죽창, 타이어 바람을 빼는 침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부 극단적인 재일조선인 파괴 분자의 동향은 점점 절이 나쁜 쪽으로 치닫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하고 온건한 재일조선인의 발판을 무너뜨리고 한일 두 민족의 이간을 초래해 친선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

고 있다고 생각된다.⁵

‘이제 일본인이 아니다.’ 일본이 항복한 직후 맥아더 원수가 이쓰기厚木에 집합하자 가장 먼저 이렇게 소리친 것은 육십만 재일조선인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전쟁 전에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온 사람들이거나 전쟁 중 징용으로 끌려온 사람들로, 일본에서의 생활이 참혹했던 까닭에 그 강한 성격이 일거에 폭발했다. 그들은 패전국에 상륙한 진송국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혼란을 틈타 우리의 장전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쌀과 옷, 설탕 등 ‘물자’가 부족했던 시대에 그들은 경제 통제 따위는 나 모른다는 식으로 미구잡이로 ‘물자’를 움직였다. 그들의 암시장에서는 당시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순면 내의나 접화, 파지루, 위스키, 외국 의약품 등을 쉽게 살 수 있었다. 필로폰이나 밀주의 집산지도 주로 조선인 암시장이었다. 너적분한 시장에서 속속 부지가 탄생했다. 완전한 무법 상태였다. 그 좋은 예가 쇼와평화 24년(1949년) 봄에 도쿄 후키가와(樺川)에서 일어난 에다가와(枝川)정 사건이었다. 조선인 4인조가 쓰키시마(樺島)의 직물 도매장에서 순면 여든두 필을 훔쳐 거액을 챙겼다. 범인의 신분이 파악되어 후키가와 경찰서의 형사 두 사람이 체포 영장을 들고…… 잡으러 갔다. 그런데…… 거꾸로 ‘불심 검문’을 당해 자루를 뒤집어쓰고 물매를 맞았다. 당시 조선인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는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보지도 듣지도 돌아보지도 마라.” 후키가와 경찰서 형사들은 이런 말을 하며 자신들의 무력함을 한탄했다고 한다.⁶

좀더 노골적인 적의와 증오는 전후 일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가 회고조로 기록한 다음의 글에서 볼 수 있다.

중전 당시 국내에는 강제 연행된 사람을 포함해서 조선인, 중국인이 이백만 명 이상 있었는데 특히 호고(虎高)현에 많아서 쇼와 18년(1943년)에 삼삼만오천 명으로 전국의 7% 이상을 차지해 오시키(大坂, 도쿄)에 이어 세번째였다. (중략) /그들은 암시장을 장악하고 거대한 이익을 올렸으며 무리를 이루어 자갈이 나뉘는 초토화된 고베 거리를 확보했다. 지나가는 행인의 눈초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트집을 잡거나 무전 취식을 했으며 대낮에 큰길에서 부녀자를 희롱하기도 했다. 선량한 시민은 공포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이런 불량 분자들은 구일본군의 육해군(陸海軍)이 입던 비행복을 즐겨 입었다. 소매에 완장을 차고 반장화를 신었으며 새하얀 비단 목도리를 목에 감고 기세 좋게 거리를 으스대며 걸었다. /허리에는 권총을 차고 허얀 배를 두른 쇠파이프를 손에 든 그들의 약탈, 폭행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경찰이 달려와도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 민족이야, 전쟁에서 진 너희 일본인이 뭘 어쩔 거야.” /경찰을 괴롭히고 경찰이 차고 다니는 칼을 구부러뜨렸다. 거리는 폭도가 날뛰는 무법 천지였다. /여기에 일부 악질적인 미군의 폭행도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중략) /나는 그들의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분노로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을 저지하고 억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경찰은 무력했고 야쿠지는 팔짱을 끼고 눈을 돌렸다. /도대체 누가 이 거리를 지켜야 한단 말인가?

인용문에 기록된 것은 일본의 패전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권력 관계가 뒤바뀐 시기에 재일조선인이 행한 행위에 대한 인상으로 모두 부정적이다. 즉 패전에서 다음해 3월에 걸쳐 약 130만 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인이 일으킨 다양한 사회적 혼란, 각지의 탄압과 공장과 회사와 토목 현장에서 조선인이 행한 태업과 쟁의, 조선인 암시장,

야쿠지와외의 항쟁 사건, 경찰서 습격 사건, 철도 수송 위반, 재일본 조선인연맹(조선)의 활동, 외국인 등록 증명서의 부정 발급 및 위조 변조 사건 등 재일조선인과 관계된 일련의 행위는, 오야 소이치(大宅 新一)가 어느 좌담회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인에게 “조선인과 공산주의, 조선인과 화염병, 조선인과 암거래, 조선인과 범죄”를 서로 연관시켜 생각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고, 그것을 해소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이 시기의 재일조선인의 행위가 일본인의 심리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 몇몇 논고에서 가토 히루코(加藤 晴子 (1950년생))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지위는 평상시라면 모든 국가에서 내국인이 우대된다. (중략) 그런데 전쟁에서 패한 일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외국인은 일본의 권력과 법 아래 복종하지 않고 연합국의 권력과 권리 법령에 복종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연합국 사람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중립국 사람과 국적이 없는 사람이 있으며 가장 아래에 일본 사람이 위치했다. (중략) 패전 직후에 조선인이 “우리는 이등 국민이고 일본인은 사등 국민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연합국 사람에게 질책은 지위와 대우를 요구한 것은 이런 수직적 계층 관계를 즉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재일조선인은 이 수직적 계층 관계 속에서 가능한 한 위로, 즉 연합국 사람에게 가능한 한 가까워지기를 기대했다. 해방 전에 일본(인)에게 억압받고 차별당했다는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일본인과 차이가 나는 지위를, 다시 말해서 연합국 사람과 동등한 특권을 향유하고 대우받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력으로 획득했다.*

돌이켜보면 재일조선인의 ‘해방’은 자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 때문에 스스로를 '해방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그 명분 아래에서 그들이 행한 다양한 언동은 결국 '해방'을 안겨준 연합국, 점령군의 위광을 등에 업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패전으로 패배감에 젖어 있던 당시 많은 일본인의 신경을 자극했으며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중략)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과 일본인의 책임을 따져 묻는 것 자체는 당연한 주장이었지만, 앞에서 말한 사태의 추이로 인해 이미 뒤늦게 있던 일본인과 재일조선인의 당시 관계를 볼 때, 그것을 성실하게 받아들이라고 일본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일이 아니었을까. 재일조선인 스스로 (중략) 자신들의 언동과 생활 태도를 성찰하려는 노력도 없이 일본과 일본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만을 추궁하는 상태는 건전한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¹⁰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이카메미즈와 저널리즘의 세계에서는 소수파에 속하는 듯하다. 기토의 논문에 대해서는 몇몇 비판이 가해졌다. 고단甲南 대학 교수인 다키지와 히데키(瀧澤秀樹) (1943년생)는 기토의 논문을 "전쟁 전의 '발령선인(不逞鮮人)'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선인=폭도'론" "공인 당국의 논리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하면서 "전쟁 한 역사 감각"에서 보면 일본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 추궁에 서뿐만 아니라 패전 후의 일본 현대사에서도, 재일조선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중략) 지명된 귀결"이라고 말했다.¹¹ 또한 가나가와 神奈川 대학 교수였던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1935~1989년)는 "지배한 쪽에는 후하고 지배당한 쪽의 시행 착오에 대해서만 이상하게 엄격한, 전도된 역사상"이라고 말하면서, 기토가 지적인 '벌벌 행위'는 "사실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벌벌' 또는 무원칙·무책임이라고 단순하게 결정할 수 없으며 해방 인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¹²

다키지와와 가지무라의 비판에서 공통적인 것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부정적인 관점을 일본인 자신의 부정성, 즉 편견과 경시라는 맥락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다. 그러나 이 시기에 벌어진 재일조선인의 행위를 무시하면 왜 전후 일본인이 조선인에 대해 전통적인 멸시감뿐만 아니라 적의와 증오로 가득 찬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1951년에 실시된 이즈미 세이이치의 조사에서도 보았듯이(제1장) 이 시기의 조선인 이미지에서 눈에 띄는 것은 '벌벌하다' '문화 수준이 낮다' '교활하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을 업신여긴다' '일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을 증오하고 있다' 등이며, 여기서 조선인에 대한 전통적인 멸시뿐만 아니라 전후 조선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길러졌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적의와 증오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 다키지와와 가지무라는 일본인의 부정적인 상황을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했지만, 재일조선인의 행위는 때때로 조선인 스스로가 '민족적 편견'과 과도한 민족 감정의 발로라고 여길 정도였으며,¹³ 그것은 조선인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기보다 근대 이후 조선인에 대한 멸시감을 강화시킨 결과를 낳았다.

'이승만 라인'에 대한 시각

첫번째 시기에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이승만 라인'(한국에서는 '평화선')의 설정에 따른 일본 어선의 나포와 억류 사건이었다. 이승만 라인이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의 선언」을 바탕으로 설정된 것으로, 한국의 해안선에서 최

1987년.

11. 田中明, 『상식적인 한국론을 권유함(常識的朝鮮論のすすめ)』, 88쪽, 朝日新聞社, 1981년.
12. 栗原彬, 『역사와 정치성(歴史とアイデンティティ)』, 177·180쪽, 新曜社, 1982년.
13. Lee Chong-Sik, *Japan and Korea: The Political Dimensions*, Hoover Institution Press, Stanford, 1985 [小比木政夫·古田博司 역, 『전후 한일 관계사(戦後日韓關係史)』, 中公叢書, 62쪽, 中央公論社, 1989년].
14. 田中明, 같은 책, 65쪽.
15. 『레이디경향』, 1985년 2월호, 308~311쪽.

제2장

1. 栗原彬, 『역사와 정치성(歴史とアイデンティティ)』, 233쪽, 新曜社, 1982년.
2. 日野啓三, 『태풍의 눈(颶風の眼)』, 57~59쪽, 新潮社, 1993년.
3. 日野啓三, 같은 책, 133~134쪽.
4. 旗田勲, 『조선과 일본인(朝鮮と日本人)』, 320~321쪽, 勁草書房, 1983년.
5. 田中明, 『상식적인 한국론을 권유함(常識的朝鮮論のすすめ)』, 230~231쪽, 朝日新聞社, 1981년.
6. 本田靖春, 『우리들의 어머니(私たちのオマエ)』, 31~32쪽, 新潮社, 1992년.
7. 川村泰, 『서울의 우울(ソウルの憂鬱)』, 231쪽, 草風館, 1988년.
8. 玉城素, 『민족적 책임의 사상(民族的責任の思想)』, 17~18쪽, 御茶の水書房, 1967년.
9. 玉城素, 같은 책, 25쪽.
10. 佐藤忠男, 『오시마 나가시의 세계(大島渚の世界)』(朝日文庫), 161~162쪽, 朝日新聞社, 1987
11. 小浜逸郎, 『지학하는 '애매한 나'(自虐するあいまいな私)』, 『正論』, 1995년 5월호.

12. 小田實·郭東儀 편, 『한국에 자유와 정의의(韓國に自由と正義を!)』, 373쪽, 第三書館, 1981년.

13. 佐藤勝巳, 『나의 체험적인 조선 문제(わが體驗的朝鮮問題)』(東経選書), 51쪽, 東洋經濟新報社, 1978년.
14. 安江良介, 『고립하는 일본(孤立する日本)』, 180~181쪽, 影書房, 1988년.
15. 司馬遼太郎·上田正昭·金蓮壽 편, 『일본의 조선 문화(日本の朝鮮文化)』(中公文庫), 9~11쪽, 中央公論社, 1982년.
16. 關川夏央, 『도쿄에서 온 나그네(東京からきたナグネ)』, 72~82쪽, 筑摩書房, 1987년.
17. 黒田勝弘, 『진짜 서울 체험(ソウルの原體驗)』, 서문, 亞紀書房, 1985년.
18. 黒田勝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韓國社會をみつめて)』, 서문, 亞紀書房, 1983년.

제3장

1. 鄭大均, 『한일의 패럴렐리즘(日韓のパラレルリズム)』, 제5장, 三交社, 1992년.
2. Edward Wagner,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1904~1950*,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New York, 1951 [外務省 간행, 『일본의 조선 소수 민족 1904~1950(日本における朝鮮少數民族1904~1950)』, 2~3쪽, 湖北社(復刻), 1975년].
3. Edward Wagner, 같은 책, 130쪽.
4. 『기지 신보(時事新報)』, 1952년 1월 13일자 사설.
5. 吉橋敏雄, 『최근 우리 나라에 있는 조선인 집단의 동향에 대하여(最近のわが國における朝鮮人團體の動向について)』, 『警察時報』, 제7권 제8호, 28쪽, 1952년.
6. 마이니치 신문사(毎日新聞社) 편, 『하얀 손 노란 손(白い手黄色い手)』, 29~30쪽, 毎日新聞社, 1956년.
7. 田岡一雄, 『다오카 가즈오 자서전 '충격편'(田岡一雄自傳「衝撃編」)』(徳間文庫), 174~176쪽, 徳間書店, 1982년.

8. 『주요공론(中央公論)』, 1952년 9월호.
9. 加藤晴子, 「제일 한국인의 처우 대책 확정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1945~1952년(在日韓國人の處遇對策確定過程にみられる若干の問題について—1945~1952年)」, 『日本女子大學文學部紀要』, 제33호, 55쪽, 1984년.
10. 加藤晴子, 같은 논문, 58쪽.
11. 澁澤秀樹, 『한국에로의 다양한 여행(韓國へのさまざまな旅)』, 210~211쪽, 影書房, 1992년.
12. 梶村秀樹, 『제일조선인론(在日朝鮮人論)』(梶村秀樹 저작집 제2권), 240~241쪽, 明石書店, 1993년.
13. 加藤晴子, 같은 논문, 48쪽.
14. 加藤晴子, 「전후 한일 관계사에 대한 고찰(상)」(戰後日韓關係史への考察(上)), 『日本女子大學文學部紀要』, 제28호, 20~22쪽, 1979년.
15. 『기지 신보』, 1953년 10월 19일자 사설.
16. 『산교케이가이 신문(産業經濟新聞)』, 1953년 10월 21일자.
17. 『기지 신보』, 1953년 10월 29일자.
18. 『아시아의 신문』, 1953년 11월 13일자.
19. 제16대 국회 중의원 수산위원회 의사록 제27호.
20. 제16대 국회 중의원 외무위원회 의사록 제32호.
21. 加藤晴子, 같은 논문, 37쪽.
22. 加藤晴子, 「전후 한일 관계사에 대한 고찰(하)」(戰後日韓關係史への考察(下)), 『日本女子大學文學部紀要』, 제29호, 19쪽, 1980년.
23. Lee Chong-Sik, *Japan and Korea: The Political Dimensions*, Hoover Institution Press, Stanford, 1985(小此木政夫·古田博司 역, 『전후 한일 관계사(戰後日韓關係史)』, 中公叢書, 59쪽, 中央公論社, 1989년).
24. 加藤晴子, 「전후 한일 관계사에 대한 고찰(상)」, 21쪽.
25. 藤原てい,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中公文庫), 57쪽, 中央公論社, 1976년.
26. 『산교케이가이 신문』, 1953년 10월 21일자.

27. 『요미우리 신문(讀賣新聞)』, 1953년 10월 22일자.
 28. 같은 신문, 1953년 11월 6일자.
 29. 『산교케이가이 신문』, 1957년 7월 23일자.
 30. 『まい니치 신문(毎日新聞)』, 1955년 12월 8일자.
 31. 같은 신문, 1955년 12월 21일자.
 32. 鈴木一, 『한국의 마음(韓國のこころ)』, 268~270쪽, 洋洋社, 1968년.
 33. 『사상의 과학(思想の科學)』, 1969년 6월호에서 재인용.
 34. 鎌田澤一郎, 『조선 신화(朝鮮新話)』, 337~338쪽, 創元社, 1950년.
 35. 岩田宏, 『이와타 히로시 시집(岩田宏詩集)』, 思潮社, 1966년.
 36. 玉城素, 『민족적 책임의 사상(民族的責任の思想)』, 109~110쪽, 御茶の水書房, 1967년(재인용).
- 제4장
1. 『기지 신보』, 1953년 10월 22일자.
 2. 寺尾五郎, 『조선·그 남과 북(朝鮮・その北と南)』, 253~254쪽, 新日本出版社, 1961년.
 3. 藤島宇内 외, 『조선인(朝鮮人)』, 234~237쪽, 日本讀書新聞出版部, 1965년.
 4. 김지하작품집간행위원회, 『민중의 목소리(民衆の聲)』, 1~2쪽, サイマル出版會, 1974년.
 5. 小田寛, 『나의 조선(私と朝鮮)』, 247~252쪽, 筑摩書房, 1977년.
 6. 和田春樹, 『남쪽 친구와 북쪽 친구에게(北の友へ南の友へ)』, 43쪽, 御茶の水書房, 1987년.
 7. 寺尾五郎, 『38도선의 북쪽(38度線の北)』, 82~83쪽, 新日本出版社, 1959년.
 8. 寺尾五郎, 같은 책, 96~98쪽.
 9. 寺尾五郎, 같은 책, 68~74쪽.
 10. 寺尾五郎, 같은 책, 80~89쪽.
 11. 寺尾五郎, 같은 책, 91~95쪽.